

2026 EBS 수능특강 독서 중요도

2026 수능특강 독서 중요도 (3월 Ver)
(아예 안나올 것 같은 소재는 제외)

[중요도 기준]

- S : 매우 중요 (출제된다면 매우 어렵게 나올 것 같은 지문)
- A : 중요 (6평 전 최소 3회독)
- B : 혹시 모름
- C : 한 번 읽어보는 것만으로 충분

차례	제재	제시문	중요도	ET' s COMMENT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동양철학	책선의 방법과 윤선거의 책선 (13p)	A	사실 공자, 맹자, 주자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수특에 몇 없는 동양 철학 관련 주제라는 점에서 한 번쯤 풀어볼 필요는 있다.
	동양철학	지각에 대한 김창협 주장 (25p)	B	너무 뻘한 지문이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는게 좋다. 뻘하다는 것은 그만큼 출제자가 상당히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술	사실주의 연극과 상징주의 연극 (28p)	C	존나 쉽다. 그냥 한 번만 읽어봐라
	사회	성격 심리학의 자료 수집 (36p)	B	내용 자체는 쉽긴 하지만 사회 지문에 출제되기 상당히 맛있는 소재다. 한 번쯤은 풀어봐라.
	정치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 (39p)	A	국제 정치와 법에 대한 소재는 평가원이 별로 건드리지 않은 소재일뿐더러 사회 지문에 출제되기 상당히 맛있는 소재다.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물리학	형광등과 LED 전등 (17p)	C	너무 뻘하다.
	물리학	전자의 공전과 스핀에 의한 물질에서의 자기장 발생 (21p)	B	안 읽고 해당 소재를 시험장에서 만났다면 상당히 고생할 수 있다.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
[2부] 인문 · 예술	서양철학 (논리학)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한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56p)	S	작년 6평에 3년 만에 논리학이 출제가 되었고, 올해도 논리학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수특에 몇 없는 논리학 지문 중 하나이다.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읽고 풀도록 하자. 또한, 논문에 따르면 작년 6평에 출제된 '에이어'라는 철학자와 '비트겐슈타인'은 매우 맞닿아있는 철학자이다. 작년 6평과 같은 교수가 6평이나 수능을 출제하러도 들어간다면 매우 출제 확률이 높은 소재이다.
	서양철학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 (60p)	C	사실 수많은 소재 중 굳이 이 소재를 낼까 의문이긴 하다. 그래도 내용 자체는 참신하니 한 번쯤 읽어보도록 하자.
	서양철학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73p)	A	윤리적인 논의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6평의 (나) 지문과 맞닿아 있다. 한 번쯤 읽어보도록 하자.
	서양철학	놀이하는 인간에 대한 철학 (77p)	C	사실 수많은 소재 중 굳이 이 소재를 낼까 의문이긴 하다. 한 번쯤 읽어보도록 하자.
	서양철학	심리 철학의 물리주의적 이론들 (93p)	B	동일론과 기능주의에 관한 논의는 '22_예비평가, 24_6평'에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서양철학	방주네프의 통과 의례 개념 (107p)	B	집합 의례, 통과 의례에 관한 논의는 15/16년도 평가원에서도 한 번 출제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또 출제될 수 있다. 한 번 읽어보자.	

	동양철학	단군 이야기에 대한 해석과 이해 (70p)	B	내용 자체는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서술 방식이 작년 수능과 상당히 유사성을 띄면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 한 번쯤 읽어보도록 하자.
	동양철학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과 즉위식 (102p)	S	개인적으로 존나 썩하다. 무조건 3번 이상은 읽어보자
	논리학	지식에 대한 토대론의 입장과 고전적 토대론, 최소 토대론의 주장 (81p)	S	작년 6평에 3년 만에 논리학이 출제가 되었고, 올해도 논리학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수특에 몇 없는 논리학 지문 중 하나이다.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읽고 풀도록 하자.
	예술	하먼의 예술론 (89p)	C	사실 수많은 소재 중 굳이 이 소재를 낼까 의문이긴 하다. 한 번쯤 읽어보도록 하자.
[2부] 사회 · 문화	경제	채권 만기 수익률의 결정 요인 (113p)	S	기출에 상당히 출제된 적이 많은 소재이긴 하지만, 수특 원본이 상당히 어렵다. 꼭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경제	다양한 연금 제도 (117p)	A	수식을 계산하는 <보기> 문항으로 출제되기 매우 좋은 소재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법] 제재로 바꾸어서 출제하기 좋다.
	경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네팅, 매칭, 선물환 헤지, 통화 옵션 헤지 (121p)	S	기출에 상당히 출제된 적이 많은 소재이긴 하지만, 환위험의 개념은 좀 생소하고, 상당히 트렌디하며 수특 원본이 상당히 어렵다. 꼭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경제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지수 (135p)	B	교육청에는 기출된 적이 있는 소재긴 하지만, 미시 경제학을 다루고 있는 소재하는 점에서 거시 경제학을 주로 다루던 평가원이 변주를 주기 상당히 좋은 소재다.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꼭 한 번쯤 풀어보자.
	경제	관세의 기능과 종류 (139p)	B	수식을 계산하는 <보기> 문항으로 출제되기 매우 좋은 소재다.
	법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131p)	B	너무 뻘한 지문이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는게 좋다. 뻘하다는 것은 그만큼 출제자가 상당히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	위험범의 의미와 형법상 미수범의 유형 (150p)	B	너무 뻘한 지문이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는게 좋다. 뻘하다는 것은 그만큼 출제자가 상당히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회	심의와 공론 조사 (142p)	B	투표에 관한 소재는 24_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 제재로 출제되기 사회 지문에 출제되기 상당히 맛있는 소재다. 한 번쯤은 풀어봐라.
	사회	사회 지리학의 스케일 개념 (146p)	A	사회 지문에 출제되기 상당히 맛있는 소재다. 한 번쯤은 풀어봐라.
	사회	택배 네트워크의 P2P 유형과 H&S 유형 (157p)	B	쿠팡 로켓배송...
	정치	무의사 결정 (126p)	A	사회 지문에 출제되기 상당히 맛있는 소재다. 한 번쯤은 풀어봐라.
[2부] 과학 · 기술	생명과학	뿌리혹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에 의한 질소 고정 (168p)	S	화학과 생명과학의 조화라... 상당히 맛있는 소재다. 이 지문은 그냥 요즘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와 '찰떡이다.'
	생명과학	파이토크롬 (189p)	A	과정의 흐름 위주로 읽어보자.
	화학	열팽창 계수의 정의와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갖는 합금 (186p)	A	화학 지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화학	초임계 유체와 분리 공정 (206p)	A	화학 지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리학	보어의 원자 모형과 슈뢰딩거의 양자	C	안 읽고 해당 소재를 시험장에서 만났다면

		역학적 원자 모형 (172p)		상당히 고생할 수 있다.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
	기술	에이전트 (193p)	A	컴퓨터 공학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소재다.
	기술	에크모 (198p)	S	생명과학과 기계 공학의 만남이라... 내가 출제자라면 6/9/수능 중에 한 번은 이 소재 출제한다.
	기술	보의 처짐과 철근 콘크리트 보 (202p)	C	이미 기출되었던 소재다. 한 번 읽어만 보자.
	기술	4중 극자 질량 분석기 (216p)	C	그냥 한 번쯤 읽어보자.
[2부] 주제 통합	경제	마코프 의사 결정 모형과 주식 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 (221p)	S	(가)(나) 모두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술	고대 중국의 악론과 조선 초 궁중의 악과 의례 (224p)	C	너무 빠른 지문이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는게 좋다. 빠하다는 것은 그만큼 출제자가 상당히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회	과학과 사회에 대한 견해 (229p)	C	그냥 한 번쯤 읽어보자.
	정치	세력 균형론과 패권 안정론, 동맹이론 (234p)	A	국제 정치와 법에 대한 소재는 평가원이 별로 건드리지 않은 소재일뿐더러 사회 지문에 출제되기 상당히 맛있는 소재다.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서양철학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오스의 역사 철학 (238p)	C	그냥 한 번쯤 읽어보자.
	법	법의 해석 방법과 전자 기록 위작의 의미 (244p)	B	너무 빠른 지문이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는게 좋다. (나) 지문의 소재가 좀 참신하다.
	화학	연료 전지 (249p)	A	화학 지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양철학	헤테로토피아와 사실주의적 초현실주의 (253p)	B	뭐 그냥 가볍게 읽어보자.
	경제	지금 준비 제도와 경제 정책에서 중간 목표 (257p)	A	소재가 빠하지만, 지문 자체가 어렵다. 안 읽고 시험장에서 만나면 꽤나 고생을 할 수 있다.
	사회	올리히 벡과 브뤼노 라투르의 파국에 대한 이해 (262p)	C	그냥 한 번쯤 읽어보자.
[3부] 실전 학습	경제	집단행동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대한 울슨의 주장 (285p)	A	미시 경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불어, 평가원은 '실전 학습'에서 연계하는 것을 선호한다.
	생명과학	유전자-유전자 상호 작용 가설과 지그재그 이론 (289p)	S	너무 자주나온 소재이긴 한데.. 그래도 출제하기 맛있다. 더불어, 평가원은 '실전 학습'에서 연계하는 것을 선호한다.
	동양철학	격물치지에 대한 주자학과 최한기의 입장 (298p)	S	너무 자주나온 소재이긴 한데.. 그래도 출제하기 맛있다. 더불어, 평가원은 '실전 학습'에서 연계하는 것을 선호한다.
	경제	두 체계 이론과 부존자원 효과 (303p)	S	출제하기 맛있다 그냥.. 수업 때도 수업이 강조한바 있다. 더불어, 평가원은 '실전 학습'에서 연계하는 것을 선호한다.
	기술	양자 컴퓨터의 기본 연산 원리(307p)	B	존나 사설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짹짹하니 읽어보도록 하자. 더불어, 평가원은 '실전 학습'에서 연계하는 것을 선호한다.